국내
마감시황

2026.2.23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관세 이슈 소화하며 혼조세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세 영향 축소 기대감과 트럼프 행보 불확실성 혼재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846.09pt (+0.65%)	1,151.99pt (-0.17%)	865.49pt (+0.69%)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40.50 원 (-6.1 원)	3.5550% (+1.5bp)	6,882.75pt (-0.58%)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0,818 억	+2,187 억	+2,915 억
외국인	-10,939 억	+1,829 억	-14,589 억
기관	-1,440 억	-3,623 억	+11,46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이슈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근거법을 통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관세 영향 완화 기대감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중 미국 지수선물 하락 영향에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감이 다시금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KOSPI는 0.65% 올랐고, KOSDAQ은 0.17%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1.5조원, KOSDAQ은 약 14.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1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운송장비/부품과 제약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1천억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IT 서비스와 음식료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증권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기대에 원전주가 상승했습니다. 2월 1~20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며 반도체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MLCC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에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자동차, 전력기기, 코스닥 바이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유지되며 금융주가 상승 출발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대부분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외, 2차전지, 로봇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13.13%), 삼성생명(+5.94%), 효성중공업(+4.22%)이 올랐고, 한화시스템(-4.46%), 미래에셋증권(-3.67%), LG에너지솔루션(-1.37%)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